

제 180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특별강연

주제: 私はなぜヘイトスピーチを嫌うのか：日本の右翼がみる日本のネット右翼

(나는 왜 혐한시위를 싫어하는가: 일본 우익이 본 일본 넷우익)

강연자: 스즈키 쿠니오 (鈴木邦男) (정치평론가·신우익단체「一水会」고문)

정치평론가이자 신우익단체「一水会」고문인 스즈키 쿠니오씨의 특별강연이 3월 18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특별강연은 '나는 왜 혐한시위를 싫어하는가: 일본 우익이 본 일본 넷우익'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스즈키씨는 현재 일본에서 혐한, 혐중감정에 대한 책이 큰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반일감정을 일으키는 출판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제 한국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보면 한국이 어른이고 일본이 아이 같이 마음이 좁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예전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 라던가 인종차별을 공공연하게 일본사회에서 말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SNS상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법적 규제도 없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언론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중의 반발이 무서워 책임감 있는 보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즈키씨와 같이 우익으로 불리며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혐한, 혐중, 헤이트스피치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온통 일본이 배외주의 풍조에 젖어있는 나라처럼 보도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어느 기사를 만났을 때 그는 3.11. 동일본대지진 때 일본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데 오사카에서 여중생이 '한국인은 전부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츠루하시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라며 관동대지진과 비교하며 스피치를 한 사건을 말하였다. 이것을 일본 국내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언론에서 보도하며 스즈키씨가 미국기자를 만났을 때 이 사건을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30년 전에 갔었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그 당시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반공주의 협력전선을 만들어 우익끼리 사이 좋게 지내던 시절이었는데 반공의 목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안중근의 경우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애국자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점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북한, 한국에서 만든 안중근 관련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스즈키씨는 일본 정치가들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에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념관을 방문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토 사나에의 '누구도 쓰지 않은 한국'이라는 책에서 본 한국의 대북인식 또한 스즈키씨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 온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이 한국에 온 것에는 박수를 치고, 북한을 악마의 나라라고 선전하는 모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책이었다. 북한에 대한 증오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한국과 조선인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며 증오심을 일으키는 책이 출판되고, 헤이트스피치가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일 한국인 중 자살한 '아라이 쇼헤이'라는 국회의원을 30년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아라이씨가 본인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데 스즈씨는 그러한 노력을 한적이 있냐고 물었

을 때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하였다. 일본인은 단순히 일본에서 태어났을 뿐이지만 정말 아라시씨야 말로 일본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정한 애국자는 배외주의적이고 타자를 배척하며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지금 현재 그런 일본인이 늘어 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애국자의 논리로 흔히 '국가를 지킨다'거나 방위력의 강화를 주장하는데 스즈키씨는 애국적 정치가의 진정한 역할은 적을 없애고 적개심을 없애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많았으나 스캔들 속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의 정치가들은 스캔들 없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진정한 정치가로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정치가들은 일본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내부를 향한 정치에만 힘쓰고 있으며 미디어 또한 재미를 추구하면서 타락하고 있고 NHK같은 경우 재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신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격론을 피하면서 진정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회피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타락한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우익으로서의 역할을 찾으며 작년 '세계애국자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자는 주로 유럽의 우익이었는데 이민문제 등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전쟁은 애국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고 나라 전체가 애국자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즈키씨는 애국자들이 먼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동아시아에서 이 회의를 열기에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나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애국자의 만남을 조만간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 <질의응답>

질문1(박철희 교수님):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게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듣고 싶다. 두 번째는 신우익은 구우익과 무엇이 다르고, 신우익이 바라본 넷우익은 어떻게 보이는가, 넷우익은 정말로 우익인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다.

답변2: 일본에서 우익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한다. 우익 중에서 제일한 국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기억과 싸워 온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아라이 쇼케이'씨처럼 '일본, 일본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왜 우익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냐 라고 '저렇게 나쁜 말만 하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겠지' 하며 곧 없어질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신우익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들은 우익이라는 기분이 안 든다. 좌와 우의 차이는 스피드의 차이일 뿐이지만 우익이 나쁜 말이 되어 버렸다. 천황, 재벌을 지지하는 것이 우익이라고 좌익인 공산당이 말하였고, '우익은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익들이 듣고 싫어하며 '민족파'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가 자신은 우익이 아니라 '신우익'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착 된 것이다. 오래된 우익과 새로운 우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그렇게 나눈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보수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우익은 좌익처럼 '이런 일본을 바꾼다' 하는 것이며 보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수'라는 말이 좋은 말처럼 되어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좌익'과 '우익'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국가를 생각하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우익 같은 사람들이 단지 외국을 비판하며 애국심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국제대학원 김하나):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애국자와 나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번째는 헤이트스피치를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방안을 제안하는 운동은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답변2: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현재 있다. 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있지만 나는 이런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률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없애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애국자들은 비판하며 자기만족을 하고 '애(愛)'라는 것이 없다. 일본이 우익이 난폭하다고 하는데 아카오 빈이라는 유명한 우익이 공산당이라는 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 타이완은 협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와 조그마한 땅 중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아카오 빈이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그 우정을 위해서라면 땅은 상관없고 한일우호를 위해서는 독도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리자고 하였다. 어느 의미로 정론을 말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보수는 그렇지 않다.

질문3(서울대 정치외교 임): 민주당 쪽이 되면서 더 우익이 된 듯 하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미국대사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의 동기를 들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과격하게 했다고 하는데 헤이트스피치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일본인들이 건전한 네셔널리즘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답변3: 지금 일본의 미디어가 우경화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좌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익활동을 할 당시에는 우익이 소수파이고 미디어는 우익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몸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신문사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신문에서 이야기를 적는다고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 나도 4번이나 잡혔다. 그것은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한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사람을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전해야 했지만 매우 힘들었다. 그 시절 나도 위험한 것을 많이 하였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적어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시절 3.11 대지진이 일어났고 오키나와 등으로 사람들이 자민당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논의되는 점이 모두가 알 수 있게 할 명목으로 점점 유치해지고 있고 언론이 폭력적이게 변하고 있다.

질문4(국제대학원 김원민): 일본의 우익인 분이 정말로 재특회나 헤이트스피치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무시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일본우익이 90년대부터 진행된 역사수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재특회가 특권이 아닌 것을 특권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변4: 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판 받으면 화내고, 인터넷에서도 화나면 사람을 죽인다던가 한다. 비판 받는 것에 매우 약하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 받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사건 이후 관동대지진은 없고, 일본병사는 세계에서 제일 도덕적이고 위안부는 없다 라고 한다. 일본은 역사에서 잘못된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마주할 각오가 없는 것 같다.

질문5(나고야대학교 인솔자 강): 일본에 사랑할만한 일본의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한 존재, 인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배외주의인 넷우익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중근은 민족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와 더불어 동양평화론을 죽기 전에 쓰던 지역주의자이기도 하였다. 애국주의자면서 지역주의자였다. 스키씨가 닭을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가족애의 연장으로 국가애로 넓혀간다고 그것을 국가와 간간으로 넓혀져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싶고 이게 정말 애국자인 것인가를 묻고 싶다.

답변5: 애국에 관해서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람, 가족 그리고 점점 넓혀나가서 국가가 된다는 것인데 소위 '애국'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도 없으면서 자신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착각을 자민당은 이용하고 있다. 애국이 '더욱 다른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낸다' 라는 것은 이어진다. 지구 전체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서 애국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 중, 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한 부분을 보고 사랑할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

질문6(서울대학교 김진수):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좌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히려 반일,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우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우익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키씨는 한국의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답변6-1: 일본의 좌익은 어떤 사람들일까? 시이노씨는 일본에서 같이 왔는데 원래는 좌익인 분이시다.

답변6-2(시이노 레이닌): 한국의 배외주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인가? 내가 대표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좌익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지만 독재인 북한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좌익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7(나고야대학교 배정현): 왜 특히 한국,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가 커졌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익으로서 헤이트스피치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려는 앞으로의 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답변7: 헤이트스피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언할 곳이 없다,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사람은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딪힌다. 이것은 '재특회'뿐만 아니라 자민당도 그렇다. '헌법, 좌익, 한국과 중국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더 문제이다. 일본인의 약한 점은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는가' 라며 한다. 한국에 대한 질투도 있을 것 같다. 자민당이 헌법개정 할 당시 한국의 예를 든다. 중국과 북한을 비판하면서 핵을 가지려고 한다. 비판을 하면서도 부러워한다.

내가 외국에서 이야기 한 것이 두 번째 이고 첫 번째는 미국 뉴욕에서 헌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의문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접점이 있다면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다.